

박광태 시장 불출마 왜

강운태-박광태 경선 연대?

“외지인 배심원 공천은 광주 자존심 훼손”

공천 당심개입·직무평가 시행 등에 회의 “회한·후회 없다” 작년부터 불출마 시사

‘일등 광주 완성’을 기치로 3선 도전의지를 보였던 박광태 광주시장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택한 것은 ‘명예로운 퇴장’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밤 민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시민공천배심원제 50%, 당원 전수조사 50%’의 방식으로 최종 의결하자 측근들을 불러 만찬을 하며 “답답하게 받아들여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때 이미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더욱 낙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조사 결과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박 시장이 시정평가에서 좋은 평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이 오는 21일 후보면접을 실시, 1차로 컷오프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그 이전에 불출마를 선언하기로 최종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밤 민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시민공천배심원제 50%, 당원 전수조사 50%’의 방식으로 최종 의결하자 측근들을 불러 만찬을 하며 “답답하게 받아들여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때 이미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이 이처럼 3선 도전의 미련을 버리려까지는 술한 고뇌가 있었고 지나온 정치역정처럼 서서히 명예로운 퇴장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박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여론 지지도 추이와 중앙당에서 논의되던 경선방법의 유·불리를 살피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박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선 거부감이 반영되며 2위로 내려앉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진성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해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며 전열을 가다듬어왔다.

한 측근은 17일 “지난해부터 박 시장이 ‘회한도 후회도 없다.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쳤다’고 말하는 등 불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박 시장을 오랫동안 다룬 결과, 과욕으로 자신을 욱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며 “광주시민과 당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큰 그릇’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3선 포기에는 최측근이자 부인인 정말레 여사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예와 무욕을 강조하며 박 시장을 설득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최종 결정하자 박 시장은 크게 흔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당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입 의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의 시장후보를 외지인이 결정하는 데 대한 광주시민의 자존심 손상을 걱정해 왔으며 경선에 ‘당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장이 3선을 포기하고 향후 어떤 행보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선거관과 정치구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평소 측근들에게 “지난 8년 동안 광주발전을 위해 미련없이 뛰었다. 시장을 그만두면 국회의원을 하든 당권에 도전하든 자연인으로 남든 시민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배심원제는 ‘혁신 공천의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술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386과 열린 우리 당계가 주도하는 민주당 주류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배심원제를 무기로 민주계를 내몰려 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 된 것이다.

광주시정의 관계자는 “광주의 발전과 한국 정치의 성장을 위해 보탬이 되는 쪽으로 통 큰 결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 중앙당이 현직 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직무평가를 따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왼쪽)과 양형일·정동채 전 의원이 1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각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이용섭-전갑길, 정동채-양형일 단일화

표심 묶어 실리잡기...경선구도 요동

이용섭-전갑길, 정동채-양형일 등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단일화는 정치적 명분과 함께 실리를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모두 걸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단일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지세 분산과 중앙당 공심위의 후보 압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는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오는 21일까지 2~3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때 탈락해 ‘처절한 패배’를 맛보느니 차라리 후보 단일화를 통해 또 다른 ‘출구’를 찾아 정치적 부활을 노리자는 전략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론조사에 상대적으로 뒤진 상황에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컷 오프에서 탈락하기보다는 단일화를 통해 지지를 확산하는 한편 경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승부 뒤집기다.

정동채 전 장관과 양형일 전 의원은 지지성향이 겹치는 유권자가 많아 적은 표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정동영 전 대표와 양측이 모두 가까운 사이여서 시너지도 노리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모두 걸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단일화에 나섰다.

또한 일부 후보는 지지율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 단일화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면서 어떤 단일후보가 파괴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또한, 후보 간의 단일화는 당원전수여론조사 과정에서 ‘당원 밀어주기’ 등의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용섭 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은 지지기반이 광산구라는 점에서 광산지역 표심을 한데 묶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사실 이들 두 사람은 출마선언 이전부터 이 의원이 광주시장으로 가게 되면 비게 되는 광산을 선거구를 전

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어제 전격회동 주목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운태 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이 17일 전격 오찬 회동을 함께 따라 ‘경선 연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불출마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경선 연대’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시장이 출마를 접고 강 의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과 강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함께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한 데다, 강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높은 여론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직이었던 박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다는 점도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이 출마를 접고 박 시장을 도왔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

시장이 출마를 접고 강 의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두 사람의 연대는 ‘원-원’이 될 수 있다. 박 시장은 명예로운 퇴장을 통해 정계 복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강 의원 측에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물러나고 물밑 지원까지 얻어낸다면 경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과 강 의원 모두 이날 회동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강 의원 측에서는 “일각에서는 광주시장 경선 연대를 위해 만난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박 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오래전에 잡힌 오찬 약속이었으며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시민공천배심원제 50%

시민·전문배심원 각각 200명씩

■ 당원전수여론조사 50%

1만~3만명 극비 전화면접조사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이 ‘시민공천배심원제 50%+당원전수여론조사 50%’로 확정됐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데다 당원전수여론조사와 함께 실시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경선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50%=배심원단은 시민배심원단과 전문배심원단이 각각 200명씩 동수로 구성될 예정이다. 배심원단 선정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주관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관위가 배심원 구성, 토론회 패널 선정, 사회자 선정 등을 총괄 관리한다. 전문배심원단에 참여하는 사회·직능단체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이후 공개된다.

배심원은 당초 1인 2표를 행사하도록 시행세칙에 적시됐지만 시민공천배심원제가 50%만 적용되는데다 최종 경선에 참여하는 광주시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될 예정이어서 1인 1표가 행

사된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일인 다음달 10일,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일반 시민도 참가할 수 있다.

토론회 직후, 후보들에 대한 배심원단의 투표가 실시되며 당원전수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가 결정된다.

◇당원전수여론조사 50%=총 17만3천여명에 이르는 광주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실제 민주당원은 10만~11만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론조사 응답은 적게는 1만명, 많게는 2~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방법은 전화면접조사이며 비용은 후보들이 균등분담한다. 당원 선거인단 명부는 중앙당이 관리하며 공개되지 않는다.

여론조사 설문 내용은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 여론조사는 극비리에 진행된다. 한편,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서류심사는 19일 실시되고 21일 면접이 이뤄진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in Air flights to Osaka. It features a large airplane flying over a cityscape with cherry blossoms. Text includes '무안 오사카 직항' (Muan to Osaka direct flight), 'JIN AIR', and '광주MBC문화탐방' (Gwangju MBC Culture Expedition). Contact information for Land Bank is also provided.